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1월 16일
제1879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 2,11)



〈카나의 혼인잔치〉, 마르텐 데 보스, 안트워르펜 노트르담 대성당, 벨기에

연중 제2주일 (다해)

제 1 독서 이사 62,1-5 |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화답송 시편 96(95)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 2 독서 1코린 12,4-11 |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음 요한 2,1-11 |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그때에 ¹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²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³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⁴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⁵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⁶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⁷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⁸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⁹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¹⁰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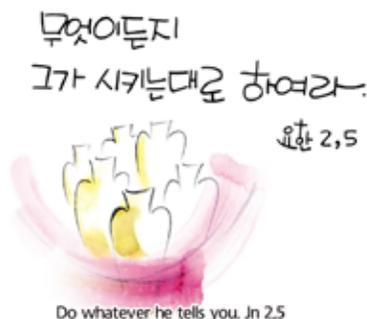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¹¹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의 첫 번째 표징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래아 카나의 어느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잔치에 쓰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상황을 알아채시고 예수님께 전하십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어머니의 말씀에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잘 해결하실 수 있다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모호합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하느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의 죽음의 때, 곧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마리아께서 일꾼들에게 이르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목소리로 한 대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탈출 24,3).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에 가득 채운 물을 모두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독 하나가 두세 동이들이고 한 동이가 40리터가량이니, 모두 합치면 적어도 480리터가 넘는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과방장의 표현대로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이 예수님의 현존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로 태어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아모 9,13).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2021-2022) 에 혼인한 부부들에게 보내는 서한

사랑하는 전 세계의 혼인한 부부들에게,
이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이 시기에 이 서한을 씁니다.
저는 언제나 가정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지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동안에 특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부부 사랑의 소명에 응답하며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기로 결정한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곧바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납니다'. 약혼한 사이가 된다는 데에는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 시간의 흐름, 자녀의 탄생, 일, 질병, 이 모든 것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틀에 박힌 습관, 확신, 안정을 뒤로하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그리스도 안에 돌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향하여 떠나게 하는 도전이 됩니다. 부부 여러분의 삶은 하나의 단일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의 모든 순간에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이루는 사랑의 친교 안에서 '우리' 가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녀들은 굳건하고 믿음직한 사랑의 표징을 찾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가정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은 사랑, 감사, 존중 그리고 신뢰를 갈망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그들을 다정하게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며**

날마다 새날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분명 자녀들을 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우리를 '기른다' 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가정은 말보다 더욱 힘이 있는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첫 자리가 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성장 과정에 동행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과 함께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혼인의 파탄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몰이해가 말다툼과 쉽게 아물지 못하는 상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움을 청하기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서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게 더한 고통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무한한 자비로 여러분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에게서 피난처와 여정의 빛을 찾으십시오.

2021 바오로딸 성경학교 동계연수회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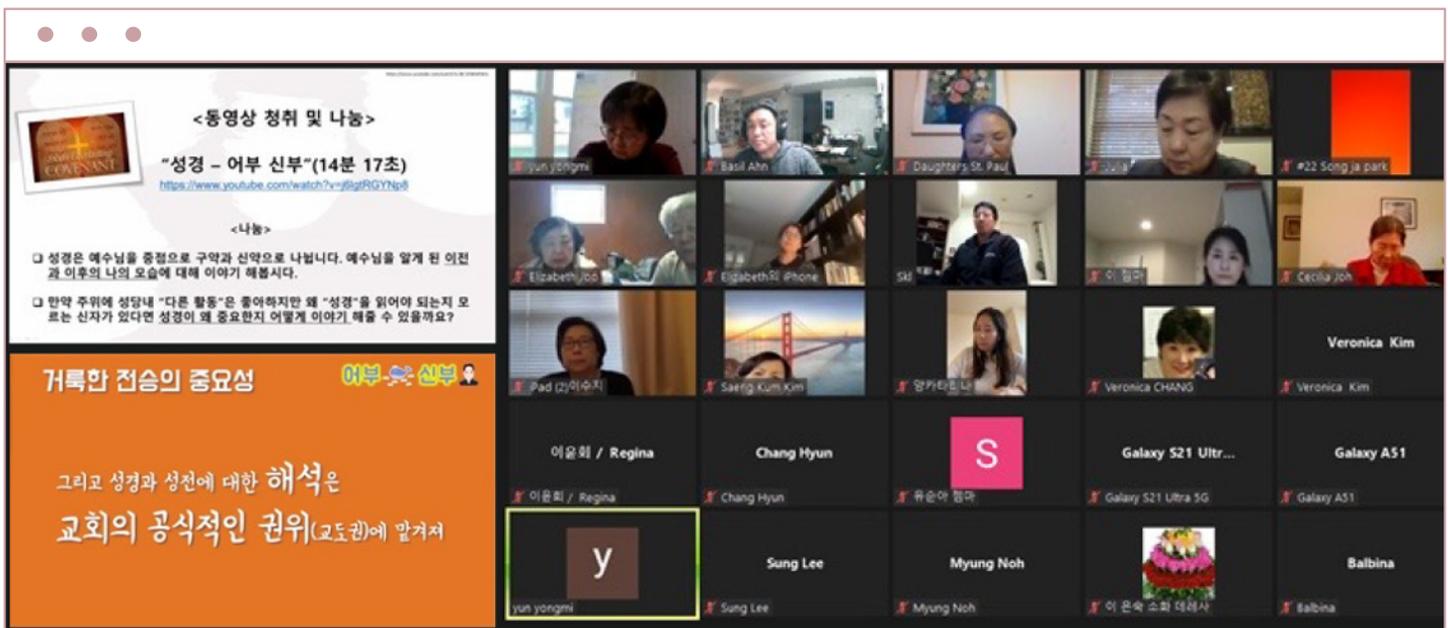
본당 성경공부 프로그램(교육부 주관) “바오로딸 성경학교”가 지난 1월 9일(일) 2021년 2학기를 마치며 비대면(Zoom)으로 동계 연수회를 가졌다.

1, 2학년 수료자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의 격려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신부님께서 “말씀과 성경공부는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신비롭다”며 “이제는 익힌 것을 삶 안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셨다.

이번 연수회는 2번의 보충강의와 동영상 청취, 나눔과 체험담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를 맡은 바오로딸 홍젼마 수녀님은 창세기의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다윗 왕조까지 이어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구약은 신약의 예형**”이라고 알려주시며 모세와 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파스카, 그리고 다윗 왕국과 그리스도 왕국을 비교해 주셨다.

체험담 발표에 나선 김창현 크리스티나 자매(1학년)는 이집트의 광야생활과 자신의 삶을 비교 설명했고, 김영석 마티아 형제(2학년)는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며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마무리에 나선 홍젼마 수녀님은 암 투병 중에도 끝까지 과정을 이수하신 분과 여든이 넘는 나이에든 용기 있게 과정을 시작하신 분의 체험담을 들려주며, 성경공부를 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

이제 2학년은 3학년 중급과정(모세오경·역사서)으로, 1학년은 2학년 입문과정(신약)으로 진급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1학년 구약 입문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등록은 미사 후 친교실)



1 나눔 실천 2차 헌금

- 이번 주일(매월 셋째 주일)은 나눔 실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차 헌금은 환경이 어려운 이웃 본당에 전달됩니다.

2 1월 하상회, 안나회 모임

- 1월 하상회, 안나회 모임이 코로나 확산세로 취소되었습니다.

3 꾸리아 모임

- 일시 : 1월 16일(일) 오전 11:40 (하상관 #3,4)
- KF 94 마스크 착용으로 진행합니다.

4 텃밭 가꾸기 세미나(교육부 주관)

- 일시 : 1월 23일(일) 오전 11:40(A-1,2)
- 주제 : 실습을 위주로 한 텃밭 가꾸기 호박씨 / 수퍼 백일홍씨 무료 지급
- 강사 :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 275-0691

5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일(화) 오후 7:30
-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을 기억하며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K of C 월례회의 연기

- KOC 월례회의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7 2022년 교무금 카드 발송

- 2021년 교무금 세금공지 납부액 영수증과 2022년도 교무금 카드를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 액수에 문제가 있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8 2022년 바오로 딸 성경학교 등록(1, 2,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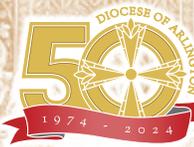
- 등록 기간 : 1월 16일(일)까지
- 등록 대상 : 1, 2, 3학년 우편통신, 이러닝 과정
- 등록 방법 : 미사 전후 친교실 · 사무실
- 문의 : 교육부 (703) 850-2968

9 주일학교 개학 연기

- 주일학교 개학이 1월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0 본당 사무실 월요일 휴무

- 본당 사무실은 월요일 휴무입니다.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 지침

1.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참례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2.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www.fcps.edu 참조)
3.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참례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4.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코로나19 본당 수칙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오미크론에 천 마스크나 덴탈용 마스크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KF 94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당 미사 참례와 모임시에 KF 94를 써주시고, 평일 미사에는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세요.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평일미사 때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 주세요.
4.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꼭 쓰고 합니다.
5.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1월 9일(주님세례축일)

주일헌금	\$ 5,330.00
교무금	\$ 10,790.00
교무금(신용카드)	\$ 2,15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3,200.00
온라인 봉헌	\$ 5,190.00
합계	\$ 26,66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월 20일(목) 오후 5:00-6:00
1월 21일(금) 저녁 8:00-9:00
1월 23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 강론
2. 성 정 바오로 성당 2021년
3. 특강 : 윤원진 비안네 신부 “위대한 성인들”(23) - 베르나르도, 힐라리오 성인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